

# 49 旅庵全書

여암 전서

여암(旅庵)은 18세기의 실학자인 신경준  
 (申景濬 1712-1781)의 아호이다  
 신경준은 전 북 순창에서 태어나 42세  
 의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다  
 이때부터 관제에 진출하여 서산 군수  
 (瑞山郡守) 장연 현감(長淵縣監) 북청  
 부윤(北靑府尹) 강계 부사(江界府使) 등

No.

순천부사(順天府使) 등을 역임 하였으나  
사소한 실수를 처벌을 받는가 하면

파라(罷職)와 유배(流配)를 겪는 등  
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다

그가 실학자임에는 틀림 없으나 성리  
학(性理學) 따위는 거론하려 신지도 않

은채 실용적인 지리(地理)학이나 기술은  
이 용병에 학문에 전념 하였

이 여담 전서에는 신경준의 모든 저술  
등을 통괄하여 1979년에 동서문화사(경인문화사)

가 충간한 것인데 한자본(漢字本) 그  
대로 이다

1권에는 유명한 <疆界考(강계고)> 와  
山水考(산수고)가 있다 강계고는 역  
사학적 지리학적 지술이요 우리 나라 고  
대 국가들의 수도(首都) 및 국경과 고地名  
(고지명)의 연<sup>혁</sup>을 기왕의 고전(古典)  
에서 추출하여 기술 하고 자기 견해  
를 붙이기도 했다  
우리 나라 역사 지리학은 韓百謙(한백겸)

No.

10x20

10x20

(1550-1613)의 『東國地理誌(동국지리지)』  
 가 호시이노 旅庵(여암)의 『疆界考』  
 는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 
 이 밖<sup>의</sup> 그의 역사에 관해 전해는  
 『送便光日本序(송사지일본서)』에 신라가  
 일본이 내륙지방을 정복한 유일한 나  
 라임을 본증 하고 있다  
 『山水考(산수고)』는 근해방문 시의(신천)  
 海峽 신라 강의 특징 등 본 하고 있다  
 『江表』는 신정준의 『도론』이 있다

No.

신경준의 道路觀(도로관)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몇가지가 있다.

첫째로, 그는 「길과 집은 중요성이 같다」라고: 밖 함으로써 生産(생산) 즉 유통과 經營(경영) 등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.

전통적인 儒敎社會(유교사회) 즉 孔子(공자)의 사상으로 工商(상공)을 천대하는 사회 기(基)와 藝術(예술)을 경시하는 사회를 그려내며 명분과 배타 공리주의기

치우쳐 예전만은 틀려 남아 허례허사의  
 빠진 사회에서, 도론의 기능과 중요성을  
 구체적인 예시와 더불어 강조 하였는  
 그것은 당시로서는 ~~큰~~ 큰 용기를 판으로  
 했을 것이다 더욱 그는 34首(치도)를 왕정위  
 근본으로 삼으려 했고 미래론 내지 본론  
 「사람이 감위여 있으니 알아진다」라고 주  
 장 하기도 했다 따라서 <도론고(道論考)>  
 를 재인정에 번역 출간 하려 했으나 뜻을  
 이루지 못 하였다